日, 조선왕실의궤 돌려줄 듯

간 총리 "병합 100년 맞아 통절한 반성과 사죄 표명"

일본이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하고, 궁내청이 보관중인 조선왕실의궤 등을 한국에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총리 담화를 1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관방 부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정책조정회장을 만나 "10일 내각 회의에서 (총리 담화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10일 내각 회의 결정을 거쳐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많은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心からのおわび)의 기분을 표명"하고, 한반도에서 가져온 문화재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일본 정부가 반복해서 사용해 온 것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도 2005년 8월15일 전후 60년 담화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식민지 지배의 근거가 된 한국병합조약이 조선(한국)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된 것이어서 원천 무효라는 표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기도 광복 65주년인 15일이나 병합조약 체결일인 22일이나 공표일인 29일 등을 피해 최대한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성명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간 총리는 대신 사할린 잔류 한국인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의사와 궁내청이 보관 중인 조선왕실의궤 등 문화재를 한국에 인도하겠다는 뜻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금까지 해온 강제 징용 피해자의 유골 반환에 계속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北 NLL 해상서 해안포 110발 발사

북한이 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을 향해 해안포 110여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3분간 백령도 NLL 인근 해상에서 10여발이 발사됐고, 오후 5시52분부터 6시14분까지 연평도 앞 NLL 인근 해상에서 100여발이 발사됐다"며 "해안포 사격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NLL 이남으로 포탄이 넘어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자는 "사격에 따라 물기둥과 포성이 관측됐다"며 "우리 군의 서해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리 박차고 나가는 장휘국 차기 광주시교육감 당선자인 장휘국 교육위원이 9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시설 사업비 삭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리를 박차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강한 中企 많아야 청년 일자리 늘어"

이대통령 라디오 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제45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한 배경에 대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올 때 좋은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우리 청년들이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많이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부터 유능한 청년 인재들을 보다 많이 고용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현·후임 갈등' 광주시교육청 추경 원안 통과

현·후임 교육감 간 갈등을 빚었던 광주시교육청 추경 예산안이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됐다.

광주시교육위원회는 9일 시 교육위원회 임시회를 열고 61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모 고교 특별학급 사업비 9500만원만을 삭감하고 의결했다.

이로써 추경안이 상정된 지난 6일 교육감 당선자이자 현 교육위원인 장휘국 위원이 요구했던 시설 사업비 중심의 추경예산 보류는 무산됐다.

장 당선자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위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언급한다"며 자율형 사립고 기숙사 증축비 등 일부 시설비의 삭감, 수정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이승연·문동주 위원 등 다른 위원들은 "교육현안 투자를 위한 사업비로 위원들이 심도 있는 난상토론 등을 거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주장하며 맞섰으며, 이 과정에서 장 위원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장 당선자는 지난 6월 당선 후 7월 정기인사와 조직개편안의 사전 협의를 주장, 현 안순일 교육감과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추경안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현 교육감과 당선자는 지난 6월 선거 후 만나 협의 창구를 부교육감으로 단일화하고 인수위는 취임 1개월 전 구성하기로 하는 등 갈등을 봉합했으나 이번 추경 처리 과정에서 재충돌했다.

이로 인해 오는 11월7일 임기가 시작되는 장 당선자 권한의 개시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민 부교육감은 "선거 후 양측이 협의한 바 현 교육감은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공약사항을 차분히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 편성은 당선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안순일 교육감은 2006년 11월에 임기를 시작, 오는 11월6일까지 법적 임기며 지난 6·2 지방선거에 당선된 장휘국 당선자는 11월7일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與 대선후보 많을수록 좋아"

광주 온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9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원 사무총장은 이날 광주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한 것이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친박계의 의혹 제기에 대해 "모든 것을 음모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여러 (대선) 후보 중에서 좋은 후보를 고르는 게 정당정치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 후보들이) 내용을 가지고 승부를 겨룬다면 한나라당뿐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도 좋고 민주당 내에서도 건강한 긴장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표가 독주하게 되면 안주하게 된다"며 "박 전 대표를 위해서도 (대선 후보) 다자 경쟁구도를 만들어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원 총장은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 "당내에서 '김 내정자 (나이) 위로는 안 된다는 것이냐'라는 볼멘소리도 있지만,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김 전 지사를 내정한 것 같다"며 "젊은 마인드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각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인사가 영남편중, 호남 소외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며 "호남안배 차원에서 호남출신 국무총리, 권력기관장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총장은 본인의 차기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서는 정권 메이커 중 한 사람으로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 총장은 한나라당의 개혁을 위한 시·도당체제 강화 뜻도 내비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인도 홍수 169명 사망 한국인 100여명 고립

인도 북부 잠무-카슈미르주(州) 라다크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희생자 수가 외국인 6명을 포함해 최소 169명으로 늘어났다고 현지 관리와 언론매체들이 8일 전했다. 이번 홍수로 레(Leh)지역에 고립된 한국인 100여명 중 모두 8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잠무-카슈미르주의 재난청의 아미르 알리는 이날 주도 스리나가르에서 사망자 외에도 적어도 600명 이상이 실종됐으며 이 중에는 프랑스인 2명과 스페인인 1명 등 관광객 110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400명으로 추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관광객 100여명도 레 지역과 주변 마날리, 스리나가르로 통하는 고속도로들이 유실되는 바람에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고립된 것으로 외교통상부가 발표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주인도 대사관의 김근식 영사가 오늘 현지에 도착, 파악한 결과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은 기존에 알려졌던 4명 이외에 지프사파리 관람을 나선 3명을 포함해 4명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들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국회서 정신대 해법 모색 토론회

일제 치하 당시 근로정신대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9일 민주당 이용섭(사진)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제피해자공제조합 공동주최로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14살 나고야로 끌려간 소녀들-한일 강제합병 100년 일제 피해자문제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남 나주 출신인 양금덕 할머니 등 2명의 피해자 증언에 이어 동영상이 상영된다.

장병완, 시구의원과 월2회 간담회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9일 광주 남구지역 시·구의원들과 지역 현안사업 선별과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장 의원은 이날 시·구의원들과 함께 도시락 점심을 하면서 주민생활 불편 해소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시·구의원들과 간담회를 월 2회 이상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한, 장 의원과 정책자문 TF팀은 선거기간 동안 공약했던 문화산업 유치, 교육중심도시 실현, 백운광장 활성화, 각종 복지사업 분야 등 공약실천을 위해 단계별로 실천계획과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중이다.

홍인화, 재미교포학생 광주 초청

홍인화 광주시의원(북구 4)이 미국거주 재미교포 학생 45명을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간 광주로 초청한다.

이번 행사는 교포 2세들에 대한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인 광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 의원의 특별 초청으로 이뤄졌다.

광주를 방문한 교포학생들은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후 광주시와 시의회를 방문하는 등 민주화의 성지 광주의 곳곳을 살펴볼 계획이다. 홍 의원은 "재미 교포 학생들이 인권·평화·민주 도시 광주의 참 의미를 깨닫고 고국의 민주 발전상을 경험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